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3

I. 일반개황	
II. 경제동향	1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콜롬비아

I. 일반개황

면적	1,039천 Km ²	G D P	2,411억 달러(2008년)
인구	47.6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4,372달러(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2,273.16

- 콜롬비아는 인구가 브라질에 이어 남미 2위인 4천7백만 명에 이르고 있고, 2008년 GDP 규모는 2,411억 달러, 1인당 GDP는 4,372달러인 하위중소득국임.
- 1990년대 후반에 고금리 및 재정적자로 인한 외채누적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Uribe 정권 취임 이후 치안 개선에 따른 투자여건 호전,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커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였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경제성장률	4.7	5.7	6.9	7.5	2.8	-1.0
재정수지 / GDP	-0.5	-0.4	-0.4	-0.4	-0.8	-3.3
소비자물가상승률	5.9	5.1	4.3	5.5	7.0	5.0

자료 : EIU

□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경제성장세 대폭 둔화

- 콜롬비아 경제는 1999년대말 수출 부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외채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 2002년 Uribe(우리베)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상황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회복, 실업률 감소 및 소득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고성장이 지속되었음.
- 그러나 2008년부터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 브라질 경기 침체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대로 크게 낮아졌으며, 2009년에는 내수 침체까지 이어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폭 확대 전망

- 1990년대말에는 연금지급, 외자이자비용, 지방정부 지원, 과도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5%대 이상의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2004~08년 중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0.5%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부양책, 국방비 지출 등으로 정부지출은 확대되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 압력 다소 둔화

- 콜롬비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0년대 중반 선심성 지출 확대, 폐소화 약세 지속 등으로 20%대까지 육박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한자리수를 회복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출 호조, 해외거주 근로자들의 송금 증가 등에 따른 폐소화 강세로 4.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7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5%로 소폭 상승하였음.
- 2008년에는 금리 인상 및 폐소화 강세 등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대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내수 침체,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높은 대미 의존도 및 외부변동에 취약한 수출구조

- 2008년 콜롬비아 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8%,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반해, 교역 상대국 비중 면에서는 2007년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 및 수입이 각각 30.4%, 28.6%를 차지하는 등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수출의 반 이상이 석유, 석탄, 커피 등 1차 산품에 치중되어 있어 기후변화 및 국제가격시세 변동 등 외부적인 변동요인에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친시장적 정책 및 치안상황 개선에 따른 FDI 유입의 대폭적인 확대

- 우리배 대통령의 지속적인 재정개혁 노력 및 친시장적 정책과 더불어 우익민병대의 무장해제 등을 통한 치안상황 개선으로 콜롬비아는 지속적인 FDI 유입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GDP 대비 FDI는 2007년 4.4%인 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취임전인 2001년 25억 달러 대비 260%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하였음.
- 2008년 콜롬비아 내 FDI 유입액은 82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4-07년간 연평균 74.4억 달러 내외의 FDI가 유입되었음. 향후 FDI 유입 증가세는 세계 경기 침체로 40~50억 달러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 높은 원유 매장잠재력 및 유전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

- 콜롬비아의 원유확인매장량은 15억 배럴로 중남미 6위 산유국이나, 투자재원 부족으로 전국토의 20%만을 탐사한 상태여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큼.
-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못하면, 2010년 이후 원유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우리배 정부가 외자유치를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유전개발 분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 1위국으로 수출액 중 석탄이 원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석탄의 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음.
- 다만, 2009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원유 및 석탄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석유부문 외자유치 감소와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재정개혁 및 각종 개혁 추진

- 우리베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적극적인 부채관리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외화표시 부채를 국내통화 부채로 지속적으로 전환하여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을 축소시켜 왔음.
- 2006년 3월 대선의 승리를 통해 두 번째 임기를 맞은 우리베 대통령은 기존의 신중한 긴축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각종 구조개혁을 통해 공공재정 강화에 힘쓰고 있음.
 - 공공부채 축소 및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안정화, 금융부문 강화 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건설 참여, 민영화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경 상 수 지	-913	-1,884	-2,992	-5,866	-6,472	-7,800
경상수지/GDP	-0.8	-1.3	-1.8	-2.8	-2.8	-4.0
상 품 수 지	1,346	1,595	322	-596	964	-900
수 출	17,224	21,730	25,181	30,577	38,109	28,900
수 입	15,878	20,134	24,859	31,173	37,145	29,700
외 환 보 유 액	15,296	20,767	23,479	20,096	25,132	-

자료 : EIU

□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 콜롬비아의 수출구조는 석유, 석탄, 커피, 니켈 등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2002년 이후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석탄 및 커피 생산 증대 등에 힘입어 수출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과거에는 대미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대미 의존도가 크게 줄고,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스 인근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에는 투자 확대에 따른 석유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탄의 국제가격 하락, 미국 및 중남미 지역 경기침체 등 불리한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 줄어들 전망임.

□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전망

-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최근 수년간 확대 추세이며, 이는 산업활동 증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당금 지급 증가에 따른 소득 수지 적자 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0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1%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에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2.8%로 크게 확대되었고 2008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었음.
- 2009년에는 수출급감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 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감소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치안 개선으로 2008년까지 FDI 유입 대폭 증가

- 대 콜롬비아 외국인투자유입액(FDI)은 우리베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2005년과 2007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국가별로는 미국, 파나마, 멕시코, 스페인 등의 순으로 투자규모가 많으며, 주로 자원개발(석유 및 석탄) 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2009년부터는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 자원가격 하락, 미국과 FTA 발효 지연 등의 영향으로 FDI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성

□ 우리베 대통령, 2006년 재선 성공

- 콜롬비아는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의 정치투쟁이 정점에 이른 대폭력 시대 이후 국민전선 체제를 통해 양당간 교대집권 및 주요공직 동등배분으로 정권안정을 이루었으며, 1974년 전선 해체 이후에도 선거를 통해 비교적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유지되었음.
- 2002년 8월 취임한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은 강력한 마약퇴치 및 게릴라 소탕 작전을 전개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6년 3월 재임에 성공하여 2010년까지 집권하게 되었음.
- 현재 정책 지지율(2008년 말 70%)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베 정부는 세 번째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한 상황임.
 - 헌법 개정안의 상원 결정은 2009년 3월중 이루어질 예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0년 대선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2. 사회 안정성

□ 치안상황 개선으로 사회 안정성 개선

- 콜롬비아는 2대 게릴라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국가해방군(ELN)과 '70~80년대에 등장한 마약카르텔 및 우익민병대(AUC)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안한 치안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우리베 정부 취임 이후 치안 강화 및 꾸준한 협상 노력을 통해 2006년 우익민병대(AUC)가 공식적으로 무장 해제를 선포함.

- 2008년 3월 FARC 창시자이자 최고지도자였던 마누엘 마를란다의 사망과 정부군과의 충돌 끝에 서열 2위 라울 레제스가 사망하면서 FARC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며, 계속된 정부군과의 충돌로 인력 및 재정기반이 약화되면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던 정부와의 인질 석방 협상도 최종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강력한 치안 강화 정책과 더불어 우리베 대통령 취임이후 경기회복으로 실업 및 빈곤 문제도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2008년 게릴라 단체에 의한 납치 건수가 2002년 대비 88%로 감소하는 등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3. 대외 관계

□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콜롬비아는 미국, EU 등 친서방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1999년도부터 연간 6~7억 달러의 마약 및 게릴라소탕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등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 7월 미국과 체결한 FTA 법안은 미국 국회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 악화

- 2008년 3월 에콰도르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콜롬비아군과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무력충돌과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 정부가 FARC와 긴밀한 연계가 있었음을 명시하는 내부 문서가 발견되는 등의 사건으로 외교관계 악화됨.
- 2008년 7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악화되었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화해 조짐이 형성되고 있으나, 향후 평화적 관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국가신용등급 양호

- 2007년 S&P와 Fitch는 투자호조로 인한 경제성장세 지속, 조세수입 증대, 재정적자 축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각각 3월과 6월에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함.
- Moody's도 콜롬비아 외채부문의 괄목할만한 개선, 경제개혁의 지속, FDI 증가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감안, 2008년 6월 종전 Ba2에서 Ba1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함 바 있음.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 OECD : 4등급(07. 6) → 4등급(08. 6)
- Moody's : Ba2('99. 8) → Ba1('08. 6)
- S&P : BB('00. 5) → BB+('07. 3)
- Fitch : BB('02.1) → BB+('07. 6)

□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최고부보율 적용
-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Euler Hermes UK: 단기전액인수 가능

2. 외채상환태도

<표3> 대외채무규모 변화 추세

(단위: 백만 달러, %)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총 외 채 잔 액	37,656	39,698	41,383	40,296	38,800
총외채잔액/GDP	26.0	24.4	19.8	16.7	20.0
D. S. R.	35.3	31.3	24.9	18.2	22.4

□ 외채상환태도 양호

- 콜롬비아는 1980년대초 중남미 외채위기시 공적채무에 대하여 리스케줄링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외채상환 및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국제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그동안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양호한 투자등급을 받아왔음.
- 한편, 2005~06년중 IMF와 18개월 만기 6억달러의 대기성차관협정을 갱신하여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추진한 바 있으며, 국제개발금융기관(MDB) 및 이국간 차관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외채관련 지표 개선 추세

- 콜롬비아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외채규모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8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GDP의 16.7%인 402억 달러이며, D.S.R도 18.2%에 불과함.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2008년) : 12.3억 달러(수출 10.9억 달러, 수입 1.4억 달러)

- 콜롬비아와의 교역규모는 2005년 7.6억 달러, 2006년 11.2억 달러, 2007년 12.3억달러, 2008년 12.3억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총수출액은 10.9억 달러, 수입은 1.4억 달러를 기록
-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이며, 특히 2007년과 2008년 전체 수출액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체의 55.0%, 64.8%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음.

<표4> 최근 對 콜롬비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주요 품목
수 출	913	1,121	1,091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석유화학제품
수 입	206	116	143	광물, 철강금속, 커피 등

자료: KOTIS

- 해외직접투자(2008년 12월말 현재): 14건, 46,281천달러

VI. 종합 의견

- 콜롬비아 경제는 2004년 이후 치안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대, 국제신인도 제고, 수출 및 물가 안정등에 힘입어 3~7%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수출 및 외환보유고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09년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지난해 콜롬비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하는 등 양호한 국제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박현희 (☎ 3779-6676)
E-mail : sarapark@koreaexim.go.kr